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여름 피서(避暑)’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여름 해수욕(195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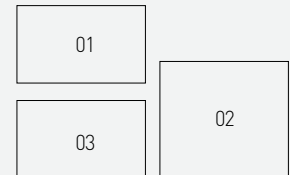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아 나선다. 근래에는 해외여행이나 시설 좋은 물놀이 공원에서의 피서가 흔한 풍경이 되었지만, 변변한 수영장 하나 없던 그 시절에는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피서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때 그 시절 피서의 추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한강 물놀이(1957), 어린이풀 개장(1960), 서울시 경찰국 한강여름경찰소 개소(1970), 젊음의 여름봉사(1972), 알뜰 피서 캠페인(1985) 등 동영상 16건
- 여름 해수욕(1956), 어린이수영장 개장(1960), 피서 열차 운행(1968), 1960년대 인천 송도(1960년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들(1976), 여름방학을 좋아하는 아이들(1990), 대학생 농촌의료 봉사 활동(1993) 등 사진 26건
- 대전해수욕장 열차 증설(1956),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1994) 등 문서 2건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4건(동영상 16, 사진 26, 문서 2)으로 1950~1990년대의 피서 모습,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가족·친지와 함께 떠나는 피서는 언제나 즐겁다. 피서(避暑) 풍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일상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안양 풀장 풍경(1958년)



- 01 부산 송도해수욕장(1962년)
02 피서 열차 '파도호' 운행(1968년)
03 1960년대 인천 송도해수욕장(©인천광역시)



독섬유원지의 여름 풍경(1962년)

생활이 어려웠던 1950~1960년대에도 무더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 더위를 식혔다. 당시에는 가까운 시냇가, 한강, 독섬유원지, 근교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버스나 기차를 타고 대전·송도·해운대 해수욕장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1956년 제18회 차관회의록의 “6월 30일부터 대전해수욕장까지 열차를 증설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많은 피서 인파가 해수욕장으로 몰려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인천 송도해수욕장 사진은 수도권 대표적인 휴양지로 각광받았던 당시를 추억하게 한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70년대에는 ‘바캉스’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피서를 떠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즐거워야 할 피서가 무질서와 바가지요금 등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대천·몽산포 등 유명 해수욕장과 도심지 수영장에 몰려든 사람들의 물놀이 사진은 보는 사람까지 시원하게 한다.

한편, 피서지는 행락객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는데, 1970년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독섬에 한강여름경찰소를 열고 한강변 수상안전을 책임지고 풍기단속을 실시하였다. 여름경찰서 활동은 현재까지 이어져 매년 해수욕장 근처에 개서식을 갖고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여름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배우며 일하자’는 슬로건 아래 피서 대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다.

01

02

03

01 대천해수욕장(1976년)

02 몽산포해수욕장(1976년)

03 워커힐 수영장(1976년)



여름 국기훈련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들(1994년)



초등학교 여름방학(1995년)

1980~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휴가문화가 자리 잡은 시기였는데, 알뜰하고 건전한 휴가가 강조되었다. ‘알뜰 피서 캠페인’ 영상(1985)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관보 제12769호, 1994년)을 추진했는데, 행락지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민들에게 행락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방학을 맞아 환호하며 교문을 나서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한껏 들뜬 아이들의 방학식 모습에서 여름방학을 반기는 학생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과거의 피서 및 다양한 여름 활동 관련 기록을 통해 국민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의 피서 모습을 추억하고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1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1970년대, 부산)

02 용인 에버랜드 수영장 풍경(1997년)

01



02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제금융기구(IBRD·IMF) 서울 총회 본회의(1985년)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차관(借款)이 상당한역할을 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는 전후 복구 및 저개발국의 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목적을 가장 모범적으로 달성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IMF 및 IBRD 가입일(1955. 8. 26.)을 맞아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 IBRD),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3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은 총 41건(동영상 6, 사진 18, 문서 14, 박물 3)으로 IMF·IBRD 가입 및 차관 도입,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발생 및 극복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 제40차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서울 총회(1985), IMF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2001) 등 동영상 6건
- 박정희 대통령, IMF 부총재 접견(1964), 자유의 집 위에 오른 IBRD·IMF 기지단(1985),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1998) 등 사진 18건
-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한국 가입(1955), 충주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IBRD 차관보증협정 체결(1978), IMF 합의서(제1차 LOI)(1997), OECD DAC 개황(2009) 등 문서 14건
-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기념 메달(1985) 3점(한국조폐공사 소장)

IMF 부총재 농촌진흥청 시찰(1964년)



한국과 IMF 부총재 경제회의(1964년)



IMF와 IBRD는 1944년의 브레튼우즈협정(Bretton-Woods Agreement)에 따라 전후 복구 및 세계 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45, 194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IMF 및 IBRD에 1955년 8월 26일 5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차관을 도입해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1968~1999년 IBRD 차관액은 약 156억 달러)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1969), 3차 철도사업(1970), 제2차 교육개발사업, 영동·동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경주관광개발사업(1973), 새마을사업(1976),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1978) 등의 추진을 위한 IBRD 차관협정 문서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로 부터의 차관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 차관협정」은 평택과 금강의 개간·경작용 용수개발을 위해 4,500만 달러를 이자율 6.5%에 거치기간 7년 포함 3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며,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차관협정」은 댐 건설을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이자율 7.35%에 거치기간 4.5년 포함 12.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IMF 조사단 일행 브리핑 청취(1963년)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가입 협정 문서
“1955년 8월 26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과 IMF 및 IBRD 협정 조문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02

03

한편, 우리나라는 IBRD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되어, 1985년 서울에서 제40차 IBRD 및 IMF 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과 기자단은 판문점, 민속촌 등을 둘러보았고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확인하였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IMF 측과 협의를 통해 IMF 의향서(LOI)를 제출함으로써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IMF 의향서(1차)는 1997년 12월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로 미셸 캉데쉬(Michel Camdessus) IMF 총재에게 제출된 것으로, 한국정부의 경제프로그램 이행계획과 향후 3년간 155억 SDR(IMF의 특별 인출권, 2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04



05

- 01 IBRD 조사단의 화차 제작 능력 시찰(1970년)
- 02 IBRD 조사단 철도 작업현장 순시(1970년)
- 03 영동·동해고속도로 준공식(1975년)
- 04 경주보문단지 개장식(1979년)
- 05 충주 다목적댐 준공식(1985년)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1998년)



나라사랑 금모으기 접수(1998년)

IMF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아이를 업고 돌반지를 가져온 엄마를 비롯하여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에서 위기에 직면해 하나가 된 국민의 단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04년 5월까지 갇기로 되어 있었던 차입금을 3년 앞당겨 상환함으로써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등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조 지원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차관 도입, IMF 구제금융 사태 및 이의 극복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경제·사회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 그리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단합하여 이겨냈던 저력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40차 IBRD·IMF 서울 총회 기념메달(1985년) : 198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40차 IBRD·IMF 총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기념메달로 태극 문양과 남대문을 기본 도안으로 하였다. ©한국조폐공사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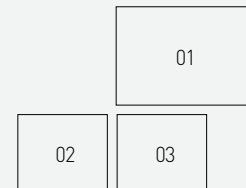
9월 「이달의 기록」 주제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우리나라는 6.25전쟁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총사령관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전세(戰勢)를 뒤집게 되었다. 인천상륙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로 곧바로 진격하여 9월 28일 마침내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인천상륙작전일(‘50.9.15.)과 서울수복일(‘50.9.28)을 맞아 9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40건(동영상 11, 사진 25, 문서 3, 우표 1)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당시의 모습과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 모습을 담고 있다.

-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개시(1950), 9.28 수복(1950),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1957), 인천상륙작전 17돌 기념(1967) 등 동영상 11건
- 인천항에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1950), 유엔군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주민들(1950), 9.28 서울수복 기념 행진(1958), 9.15 인천상륙작전 제14주년 기념식(1964) 등 사진 25건
- 작전명령서 제174호(1950), UN군 총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 및 고(故) 뎀(William Frishe Dean) 장군에게 훈장 수여의 건(1950) 등 문서 3건
-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 1건

인천항에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1950년)



- 01 인천상륙작전 후 김포로 이동 중인 맥아더 장군과 해병대원들(1950년)
- 02 물자보급을 위해 인천항에 정박한 연합군 전차상륙함(LST)(1950년)
- 03 인천상륙작전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를 검색하는 미군(1950년)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의 전세를 뒤집기 위해 적의 배후를 공격하는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상륙함대가 자리잡기에 협소하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전투 모습과 UN군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2012~2015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로부터 수집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관련 사진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부상당한 아이를 치료하는 미 해군위생병(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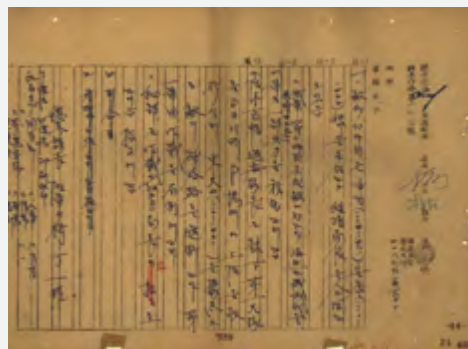
미군이 촬영한 이 사진들 중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 향하는 중간목표인 김포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의 맥아더 장군과 해병대원들, 인천항에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 물자보급을 위해 인천항에 정박한 연합군 전차상륙함 사진 등은 작전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돌아오는 피난민 행렬,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군인, 다친 아이를 치료하는 해군위생병, 홀로 길거리에 남겨져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전쟁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돌아오는 피난민들(1950년)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복원하여 공개한 「작전명령서 제174호」(문서 1)는 1950년 9월 15일 학도병이 포항 북부 장사리에서 펼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으로,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양동으로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데 기여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6.25전쟁이 끝난 후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9월 인천, 서울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공을 치하하기 위하여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 1957년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기념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1950년) :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서이다.

또한,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행진(1958년), 9.28 수복 기념 부산-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1961년), 인천상륙작전 14주년 기념식(1964년), 9.28 서울수복 중앙청 국기게양 제42주년 기념식(1992년) 모습도 눈에 띈다. 특히, 1966년 9.28 서울수복을 기념하여 열린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 모습도 볼 수 있다. '맨발의 마라토너'로 불렸던 아베베는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한 세계적인 선수였다.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년)도 눈여겨 볼 만하다.

1980년 인천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인천에서 기념식과 기념 전적비 제막식을 갖기도 하였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9.15 인천상륙작전 일, 9.28 서울수복일을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작전을 성공시켰던 국군·유엔군의 모습과 이를 기념하는 행사 기록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이들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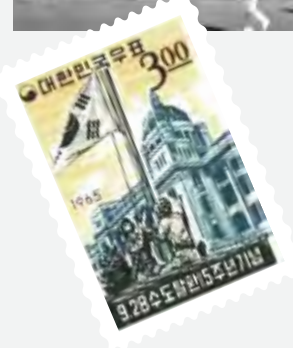
01



02



03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년)

04



01 맥아더 장군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1950년)

02 서울수복 후 태극기게양 재현(1954년)

03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사열식(1961년)

04 9.28 서울수복 기념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인터뷰(1966년)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 업무협약



국가기록원-KTV국민방송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 원장 류현순)은 6월 30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에서 시청각 기록관리 발전과 기록정보자원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사진·영상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국민 생활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서,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융합한 기록정보서비스 확산 요구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조선왕조실록,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비롯하여, 정부수립 이후 국정 전반의 중요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과 대한뉴스·문화영화 등 정부영상을 제작·방송을 통해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관리를 선도해 온 한국정책방송원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

로 뜻을 같이 하여 이루어졌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콘텐츠 개발 등 기록문화 확대사업 공동 기획 ▲선진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의 공유·활용 ▲국가정책과 관련된 주요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발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기록인의 대축제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기록총회 개최 기념 기획전시회'를 8월 중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업무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한국정책방송원과의 인적교류를 통해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는 영상물의 촬영·편집 등 각급기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한국정책방송원과의 협력이 향후 다양한 기록콘텐츠 확충으로 이어져 국가기록자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대한민국의 시대변천 과정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 온 기록업무의 주역으로서 이번 협약이 시청각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발굴에 상호 협력을 담담하고 있는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기록정보자원 공유·활용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이상진 원장과 류현순 원장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국가기록원 방문 당면 현안 점검, 직원 격려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당면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는 9월 열리는 2016년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홍윤식 장관은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 및 2016 세계기록총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총회는 세계기록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기록문화강국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록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미래 정보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전 세계 저개발국가의 희망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새마을운동 기록물 컬렉션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대전기록관으로 자리를 옮긴 홍윤식 장관은 서울·부산·대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이 역사와 기록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소장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주문하였다.

대통령기록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국정 최고의 기록물인 대통령 기록물의 보존·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관련 기술 추이를 잘 분석·보완하고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기록관 순시 모습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대통령기록관-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대통령기록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과 진중호 세종시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리더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기록물을 통한 대통령의 리더십 체험 교실 운영 ▶민주주의 선거 교실 운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등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선관위가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하게 될 프로그램은 단순 강의가 아닌 체험과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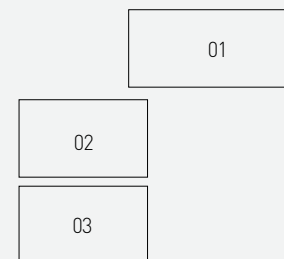
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종시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투·개표 장비를 대통령기록관 체험학습장에 설치하고, '민주주의 선거교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선거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들 선거장비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에게 대통령 리더십을 체험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가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최원정 · 이윤석과 함께 하는 기록이 특별한 대한민국 토크 콘서트 개최



01 2016 세계기록총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원정 · 이윤석 씨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
02-03 『조선왕조실록』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모습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연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기.특.한(기록이 특별한 대한민국) 토크 콘서트'에서 소개된 『조선왕조실록』 속 숨겨진 이야기 중 하나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7월 18일 『2016 세계기록총회*』 D-50일을 맞아 아나운서 최원정 씨와 개그맨 이윤석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4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곡식을 너무 많이 축내 애물단지가 된 코끼리', '흑인병사 이야기' 등 우리 기록문화의 정수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이 콘서트는 역사 토크쇼 진행을 통해 많은 역사지식을 쌓아 온 최원정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과 이윤석 씨의 재치 넘치는 질문, 국가기록원 직원들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됐고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해 참석한 방청객들의 뜨거운 호응이 콘서트 내내 이어졌다. '세계기록문화의 정수 조선왕조실록, 그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는 사초의 기록, 실록편찬, 보존 과정, 숨겨진 일화, 현대의 기록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순서로 구성되었으며, 60여 분간 진행되었다.

단일왕조를 다룬 세계 최장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우수성을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 사관의 선발 과정, 기록의 공정성, 편찬 과정에서의 엄격함, 보존 관리의 과학성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모티브가 된 강원도 일대에서 목격된 일종의 UFO 보고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로 우리나라에 온 흑인병사, 귀양 간 코끼리, 삼둥이 양육비 지원논란, 여성사관의 존재 등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쏟아내 숨겨진 역사와 기록의 재미에 흠뻑 빠져 보는 시간이 됐다.

토크 콘서트에 이어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록문화와 앞선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전자기록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기록한류'를 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어 최원정 홍보대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전통과 앞선 기록관리 모델을 전 세계에 알릴 2016년 세계기록총회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며 "이번 세계기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이 우리 기록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01

02

03

01-03 2016 세계기록총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원정·이윤석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 대통령기록관-용인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보존복원 관련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과 용인대학교(총장 박선경)는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7월 2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과 보존복원과장, 등이 참석하고, 용인대학교에서는 배재호 박물관장, 박지선 문화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우수 인재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 협력 ▶국가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학술 출판 등 정보 및 결과물 교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용인대학교는 1997년 국내 처음으로 문화재보존학과를 개설하여 문화재보존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존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내 관

련 우수 기관에 배출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용인대학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 방안 마련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기회 제공 등을 약속하고, 연계하여 기록물 보존 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 후 용인대학교 관계자들은 2015년 신청사 이전과 함께 도입한 보존·복원작업실을 비롯한 보존시설, 대통령기록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소장 자료의 보존과 전시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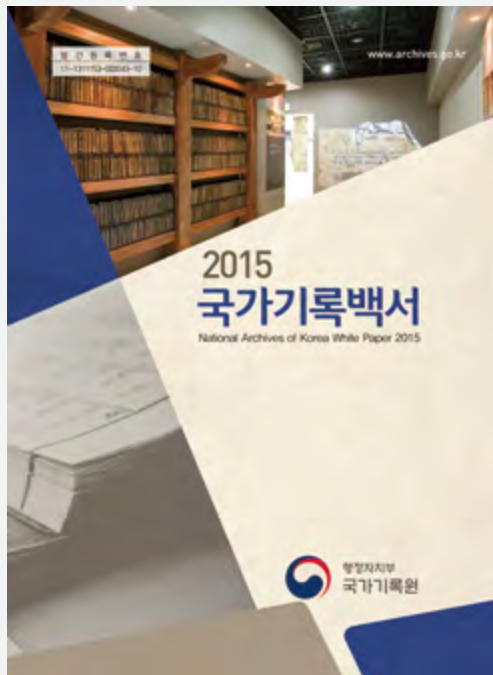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양 기관의 협약으로 중요 기록 유산의 보존과 국가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2015년 한 해 주요 활동을 기록한 『2015 국가기록백서』 발간



2015 국가기록백서 표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기록원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2015 국가기록백서』를 발간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을 정리하여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기록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국가기록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기록 백서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15 국가기록백서』는 국가기록원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주제로 한 주요 핵심과제 34편,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사례를 담은 서비스 우수사례 · 미담사례 8편 등 총 42개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적 표준의 대통령기록관 신청사(세종특별자치시) 준공 및 이전, 조선왕조실록 전용서고 구축 및 환안의식,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된 표준전자문서 이관,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광복 70년 · 지방자치 20년 기획 기록콘텐츠 개발, 국가 주요 기록물의 수집 · 복원 등 기록물 관리의 저변확대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특히 대내외적 기록정보 활용 미담으로 소개하고 있는 국유지였던 장흥군 청사부지가 장흥군으로 무상 양여되어 장흥군민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록자료 제공과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한국 전직대통령에 대한 학위 논문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공 등은 기록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번에 발간한 『2015 국가기록백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기록관리 유관기관 등 18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홈페이지, www.archives.go.kr)에도 25일(월)부터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이 선진적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1년간의 노력을 기록한 이 백서가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기록관리 담당자들과 관련 분야 연구자 등 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 새내기 기록연구직 각급 기관 추가 배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인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의 기록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지원을 위해, 9개 부처 소속의 22개 특별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에 기관별 1명씩 총 23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전문요원들은 국가기록원에서 일괄 정원을 확보하고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시행해 최종 합격한 23명이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로 임용 추천하고, 각 기관은 이르면 8월 중 신원조사를 거쳐 해당자들을 기록연구직으로 임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진하게 진행됐던 특별행정기관 및 국립대학의 기록연구직 배치 5개년 계획은 2017년에 마무리될 전망으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로 인해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이관 · 평가 · 보존 · 서비스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록연구직 채용시험에는 38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291명이 응시하여 12.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가려졌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2세로 지난해(31세)와 비슷했으며, 최고령은 46세, 최연소는 24세였다. 합격자 성별은 남성 9명(40%), 여성 14명(60%)으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속기관 기록물의 보존 · 이관 · 평가 · 폐기심사 · 보존매체 수록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기록물 평가 · 폐기는 반드시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차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3년(30명) → '14년(46명) → '15년(40명) → '16년(23명) → '17년(16명 예정))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특별행정기관 및 국립대학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나아가 대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기록관리 전문직이 확대돼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 공개

2016년도(2015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 외교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세관, 전주교육대학교 등 52개 기관이 정부 기관 중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8월 9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475개 공공기관의 2016년도(‘15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외교부 등 15개 기관 ▲시·도교육청 중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서울세관 등 10개 기관 ▲교육지원청 중에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등 16개 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이 각각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외교부는 전자기록물 보존·관리 환경 개선, 시청각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등 업무개선 실적과 외교환경 특성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을 위한 사이버 기록관리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지원하는 등 원격지 근무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별 역사적 사진기록물을 수집·전자화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전북교육 기록사진 전시회를 추진하는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관내 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역사관을 조성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기록문화를 확산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본사의 기록물관리제도 전면 개편 및 공사 100년의 역사 보존을 위한 ‘역사기록물’의 정리·DB화 추진 등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법령에 의거하여 기록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반면, 특

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90.9점, 90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관련 법령의 준수가 잘 되고 있으며,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 뿐이어서 부처신설 및 육아휴직 또는 전출 등 일시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기록관리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어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67.2점, 64.5점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도, 중요기록물 관리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일부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관장 관심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등의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은 176개 기관 중 90명 전문인력 배치됨(51%))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문요원 임용 및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커 미흡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편, 금년도에 처음 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07년 시범평가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4개 분야 9~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 항일시위 참가 학생들의 퇴학생학적부 점검해 10명 추가 확인

1940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항일학생의거’는 광주학생의거(1929년)와 더불어 우리 독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이다. 부산의거에 참가해 항일시위를 전개한 이들 10명의 명단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견된 이들은 숨겨졌던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대륙 침략전쟁이 한창인 1940년 11월 23일,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인 부산 한복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항일시위를 전개한 학생들의 전체명단이 수록된 ‘퇴학생학적부’ 등 총 12권을 최초로 발굴해 공개했다. 이 학적부들은 부산지역 교육청 등에서 이관된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열람서비스를 위한 목록작성 과정에서 ‘퇴학이유’란에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항일학생의거’는 일명 ‘노다이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1929년 광주학생의거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으로 민족말살 정책을 수행하는 일제말기에 대륙침략의 발판인 부산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의거였다는 점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제는 당시 학교병영화 정책을 시행하고,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경남일원 일본인 학생 및 조선인 학생을 동원해 무장행군, 수류탄던지기 등 15종목 ‘전력증강국방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심판을 맡은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대좌 ‘노다이(乃台)’가 일본인학생들이 우승하도록 편파운영을 하고, 조선인 학생들을 모욕하자 항일시위운동으로 발전된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단편적 신문기사와 참가자들의 회상록에 의거해 알려졌으나 이번에 전체 명단과 처벌 내용이 소상히 수록된 학적부 전체가 발굴된 것이다. 당시 항일시위는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 부산제2공립상업학교(현 개성고)의 전체학생 약 1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학적부를 통해 총 1,021명으로 확인되었다.

퇴학 등 징계를 받은 학생은 총 83명으로, 대부분 3~5학년 고학

1940년 11월 23일 ‘부산항일학생의거’에 참여한 약 1천여 명의 학적부



년생이다. 당시 시위는 고학년생이 주도하여 보수동 광복동 일대 거리시위에는 전체 학생이 참여, 밤에 전개된 ‘노다이’ 대좌 가택 습격은 고학년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왔는데, 징계내용 분석결과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항일시위 후 약 200여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에서 14명은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선고받음) 징계를 받은 83명 중에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10명이 새롭게 확인되었고, 학생별 처벌 내용도 기록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이번에 발굴된 학적부는 불굴의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항일기록물로 보존하면서, 살아계신 항일학생의거 참가자 또는 후손, 학술연구자들에게 원본열람은 물론 항일운동규명을 위한 학술자료로 적극 서비스 하겠다”라고 밝혔다.



1940년 11월 23일 부산항일학생의거 참여자의 학적부에 퇴학이유 명기 “15년(1940년) 11월 23일 경상남도 체육협회 주최 제2회 국방경기회(國防競技會)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소리치고, 동래중학 생도와 본교 생도 등 다수와 함께 배속장교 노다이(乃台) 대좌 관사(館內)에 침입하여 돌을 던지고(投石) 유리창(窓硝子)을 파괴하며, 불온한 언사(言辭)로 조롱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선동(煽動)하는 등의 행위로 검사국(檢事局)에 보내짐”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한국외대, 기록문화유산 세계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8월 12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한민국 기록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기록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기록학 연구 및 기록관리 실무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어 특화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가기록원의 국제행사 및 국제 업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기관이 향후 적극 협력하게 될 전망이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기록관리 관련 국제 행사 상호 지원 ▲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와 교류협력 지원 ▲ 기록학 및 기록관리 실무 발전 ▲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001년부터 기록관리학과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다수의 기록연구사를 배출한 바 있고, 해외 기록관리 기관과 학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학교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이번 양기관의 협약이 대한민국의 기록학 및 기록관리 실무 발전과 우리 기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록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김인철 총장(왼쪽)과 이상진 원장(오른쪽)

특히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기록인의 대축제 '2016 세계기록총회(IC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양기관의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기록관리 발전 뿐 아니라, 양 기관의 기록관리 자산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이상진 국가기록원장



○ 국가기록원·한국정책방송원(KTV) '기록 찾기' 공동 캠페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한국정책방송원(원장 류현순)은 공동으로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1호에서 21호(1952~1953년 생산)를 찾는 '기록 찾기'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생생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영상으로 기록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록자산이다.



기록영화 및 뉴스영화제작에 관한 건
(BA0791563, 1950. 12. 27. / 공보처 영화과)



전선뉴스 제작에 관한 건
(BA0791563, 1952. 4. 3. / 공보처 영화과 생산)

일선 장병의 전투상황을 수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극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기록영화 제작의 필요성과 제작 방법, 보급 등에 대한 기록이 담긴 문서로서 6·25전쟁의 상황을 우리 정부(공보처 영화과)에서 영상으로 기록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이다.

이 행사는 2016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하여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8월 30일 개관)' 기획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초기 뉴스영상에 대한 '기록 찾기'를 기획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작 및 배포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 영상기록물은 6·25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영상기록이다. 유실된 기록을 찾아서 누락 없는 온전한 대한뉴스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면 그 역사적 가치 등이 매우 크고, 완결성 면에서도 세계적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소장기관이나 소재 정보를 아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952~1953년 생산된 대한뉴스 1~21호 영상필름이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소재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기관에서는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록물 찾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대통령기록전시관 개관 6개월, 관람객 10만명 돌파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객 10만번째 입장 환영 행사

대통령기록전시관이 개관 6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월 16일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에 전면 공개하고, 운영 70여 일 만인 5월 10일에 관람객이 5만 명을 넘는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인 8월 17일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개관 초기에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관람객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이는 전시관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대통령과 기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람 동선은 1층 대통령 상징관, 4층 대통령 역사관, 3층 대통령 체험관, 2층 대통령 자료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람 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과 어린이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 10시~18시(동절기 10시~17시)로, 관람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입장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 해설안내를 원할 경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http://www.pa.go.kr>)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와 4시에 안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전시관 뿐 아니라, 기록물을 보존 처리하거나 복원·복제할 수 있는 9개의 처리실이 갖추어져 있어, 관계된 전문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9개의 처리실은 기록물을 구성하는 물질 별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 경상남도 등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불교계와 기독교계에서도 오래된 종교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와 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기록관의 보존·복원처리 시설을 견학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은 우리나라의 보존·복원 교육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개관 6개월 만에 누적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기록관은 9월 1일 『대통령기록 기획전』과 11월 7일 『세종민속문화의 해 특별전』을 다목적홀에서 각각 개막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란수도 부산」기록 찾기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는 「피란수도 부산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기록찾기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피란수도 시절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동아대박물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등 다양한 유적과 당시 피란민들의 생활, 문화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과 부산광역시 부산발전연구원은 8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란수도 부산」 기록찾기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전은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공모대상은 시청각류(사진, 오디오, 영상 등), 문서류(편지, 일기, 문서 등), 박물류(포스터, 전단, 배지 등) 등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6년이 되는 해로 피란수도를 겪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이들과 관련된 기록을 국가기록원과 부산광역시가 협력해 수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01

02

01 1952년 초량 피란민 부락 모습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02 1952년 피란수도 부산 진시장 거리 모습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시상식



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수상작 기념 촬영



글짓기 부문 대상을 받은 한정윤(연세초 6) 학생 가족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8월 25일(목) 정부대전청사 대전기록관에서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기념 『제9회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은 올해가 9회 짝으로 특히 올해는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 기록”이라는 주제로 치러졌다.

지난 5월 28일(토) 대전, 성남, 부산,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돼 초·중·고·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약 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글짓기, 그림그리기 부문에서 입상한 20명의 수상자들이 본 시상식에 참가해 행정자치부장관상(5명)과 국가기록원장상(15명)을 받았다.

글짓기부문에서는 세종시 연세초 6학년 한정윤 학생의 「내 마음의 훈민정음」, 대전시 괴정고 2학년 김하진 학생의 「기록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김연경 씨의 「나라를 구한 보물」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그림부문에서는 대전시 상원초 4학년 이예원 학생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세상」, 대전시 봉명중 2학년 홍지나 학생의 「지구촌의 중심 코리아」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특히 글짓기 대상을 받은 연세초 한정윤 학생의 「내 마음의 훈민정음」은 문자가 없는 찌아찌아족에게 문자를 보급시켜주는 한국인의 위상과 자부심, 한글의 우수성을 소설적 구성요소를 가미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그림그리기 대상을 받는 상원초 이예원 학생의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세상」은 소재 및 표현의 독창성과 상황묘사가 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시상식 개최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비롯해 국가기록원장상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상 등 수상작품 50여점을 2016 세계기록총회 행사장에 특별전시하고, 백일장 수상 작품집을 제작,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수상작품이 때마다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에 특별전시 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많은 국내·외 참석자들이 한국사회의 일상 속에 기록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 발간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국문판) 표지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영문판) 표지

우리나라의 상징·역사·문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총망라한 책자가 나왔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 책자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콘텐츠 가운데 관련 주제를 선별하고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 유발을 위해 화보집 형태로 만들었다.

특히, 올해 9월 5일~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록, 조화와 우애」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해, 총회에 참석하는 190여 개국의 기록인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문화 등을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영문판도 함께 발간했다.

책자에 소개된 테마와 기록은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독립기념관 등에서 협조 받은 다양한 자료들로 알차게 꾸며졌다. 책자에 수록된 기록은 국가기록원 자료 137점과 관련기관 자료 107점 등 총 244점에 달하고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뿐만 아니라 문서·행정박물·간행물까지 풍부하게 망라됐다.

테마는 총 3부로, 1부는 반도체, 새마을운동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2부는 태극기, 애국가 등 나라의 상징을, 3부는 경복궁, 승례문 등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5년, ©독립기념관)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1950년, ©독립기념관)

총 36개의 주제 중 ‘태극기’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한국광복군 대원 70여 명의 글귀와 서명이 흰 색 바탕에 빼곡하게 적힌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5, 독립기념관 소장)와 6·25전쟁 시 학도병을 지원한 부산 건국법정대학 법률 및 학생들의 서명이 적힌 건국 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1950, 독립기념관 소장)를, ‘새마을운동’에서는 저개발국가 빈곤 퇴치 모델로 채택, 해외에 전파된 탄자니아·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사업 관련 사진(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등을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새마을운동중앙회)



탄자니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새마을운동중앙회)

이번 책자는 ‘2016 세계기록총회’ 참가를 위해 등록된 2,000여 명의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국·영문판이 각각 제공되며 또한 전국의 국·공립도서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2016 세계기록총회’를 맞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 등을 다양한 기록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나아가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 기획 전시회 개최



기획전 개막식에서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는 주요 내빈들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내빈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원장 류현순)은 8월 30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에서 『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뉴스』(부제 2,040편에 담긴 대한민국의 그때 그 모습) 기획전시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전시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94년까지 50여 년간 2,040편 25,000여 건이라는 방대한 양의 영상을 기록으로 남긴 대한뉴스 제작과 관련 문서, 시대별 대표영상, 영상 속에 소개된 실제 제품과 의상, 촬영에 사용되었던 필름 카메라 등 3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대한뉴스 연혁」, 「대한민국 영상실록」, 「이색 영상」, 「만든 사람들」, 「영상 보존·복원」, 「크로마키 포토존」 등 총 6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본이 남아있는 영상 제작문서로는 가장 오래된 「대한뉴스 제27호 제작에 관한 건(1953, 공보처)」을 최초 공개하였으며, 대한뉴스 특종 영상인 4·19혁명 당시 가두시위 모습과 경무대를 떠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기록한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준공, 베트남전쟁 파병, 새마을운동, 남북정상회담, 88서울올림픽 등의 뉴스와 그 영상제작에 사용된 필름카메라가 함께 전시 중이다.

더불어 1959년 대한뉴스에서 우리나라 최초 국산 라디오로 소개한 ‘금성A-501’, 1962년 수출국산품으로 소개된 선풍기와 한복입은 인형, 1962년 화폐개혁 당시 발행된 화폐 등이 영상과 함께 실물이 전시돼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1954년 마릴린 먼로 방한, 1957년 우리나라 최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가족계획, 쥐잡기 운동 등 대한뉴스 속 국내외 이색 영상들이 전시 중이다. ‘영상 보존·복원’ 전시존에서는 필름 편집테이블, 무비올라 편집기, 필름캔, 보존서가 등 영상 편집 및 보존 장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영상으로 기록한 대한뉴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1년간 진행되고,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대표 기록물로 『기록의 전당』 조성



현판 제막식 모습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하여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원본을 한 곳에 모아 보존관리하기 위해 『기록의 전당(Archives Hall of Fame)』을 조성하고, 8월 30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기록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들이 대전·부산기록관 등 여러 서고에 각각 흩어져 보존되어 있었으나, 『기록의 전당』 조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관련 주요기록물을 한자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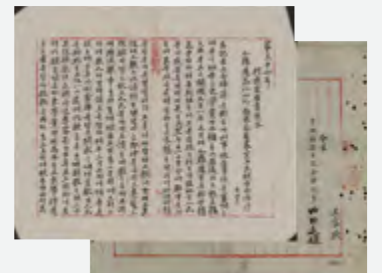
특히,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전당』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기록총회 기간 중 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핵심 견학 코스로 적극 운영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중요기록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과 기록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조성된 『기록의 전당』에는 ▲전봉준 판결문(1895), 독립선언 민족대표 판결문(1920), 일제시기 토지조사부 등 정부수립 이전 시기 기록물 180여 점 ▲국무회의록(1949~1980), 관보, 독도 관련 기록물, 정부조직법 및 국회법 개정 등 사회분야 기록물 970여 점 ▲육군본부 작전명령(1950),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1952), 전술지도·작전지도 등 6·25전쟁 관련 기록물 460여 점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한일기본조약(1965), 남북정상회담, 남북체육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통일·외교 관련 기록물 190여 점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새마을운동(1972), 경부고속철도 등 경제·건설 분야 기록물 130여 점 ▲88서울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 기본계획, 원자력발전소 건립 및 인공위성 개발 등 문화·과학 분야 기록물 140여 점 ▲대한민국 국새 및 국새의장품 ▲88올림픽 성화봉 ▲대한민국 훈장 등 분야 별 대표적인 정부 기록물 총 2,300여 점이 선별 관리된다.



일제시기 지적원도(1912년)

『기록의 전당』은 서울기록관 내에 특별히 마련한 중요기록물 전용서고로 내부 온·습도 유지와 유해생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동나무 조습(燥濕) 패널로 마감하고, 오동나무 원목 서가를 도입하는 등 최적의 보존 환경으로 구축되어 중요기록물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보존 관리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기록물을 선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깊다”라며,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전당』을 중심으로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봉준 판결문(1895년)



『기록의 전당』 내부 모습



국가기록원 소식 New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국가기록원, 제3기 민간기록조사위원 220명 위촉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국가적 관리를 위해 '제3기 민간기록조사위원' 220명을 위촉하고, 9월 7일 2016세계기록총회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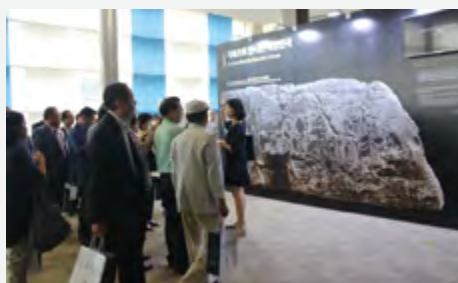
민간기록조사위원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소장 주요기록물의 소재정보를 조사하거나 발굴하여, 국가기록원이 이를 보존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3기 민간기록조사위원 발대식 기념사진



제3기 민간기록조사위원 위촉장 수여



발대식 이후 2016 세계기록총회 전시회를 관람하는 모습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록조사위원 다수는 지방문화원, 언론, 지역연구 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주요 민간기록물을 발굴하고 수집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주 문화와 예술에 대해 20여년 이상 연구한 김동수,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10여권 이상의 저술활동을 해온 김재명, 30여 년 동안 순천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향토사연구에 매진해 왔던 박병선,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도의 역사에 대한 연구서를 꾸준히 편찬했던 박정석, 창원에서 40여 년간 향토 기록문화 보존 및 확산에 기여하신 양해광 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기존 1·2기 민간기록조사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록물 중에는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양국의 함정 현황을 비교한 '일로전역참여함정비교도(日露戰役參與艦艇比較圖)', 1941년 국민학생 체육·보건기록 기입장, 1941~42년 조선총독부 약제사 시험 합격과목 증명서, 1943년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입대하기 전 가족들과 촬영한 사진 등 일제시기 사회상 등을 담은 기록물을 비롯하여, 1950년 이전 창군(創軍) 초기 군 교육기관의 생활·훈련·병영생활 관련 사진첩, 1953년 6.25 당시 제2국민병수첩 및 명예제대증, 1953년 5월 1일 촬영된 북파 공작원 첼로부대 단체사진 등 우리 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등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조사위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민간에 흩어져 있는 주요 기록물들이 국가적으로 보존되어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군 초기 육군 교육기관



북파공작원 첼로부대 대원들 사진(1953년) : 1953년 5월 1일 첼로부대 유격대 헌병대원 일동 기념사진

01



02



03



- 01 국민학생 체육·보건 기록 기입장(1941년) : 조선교육회에서 편찬한 학생 체육·보건기록 기입장(국민학교 남자용) 및 안내서로 환경조사표, 신체검사표, 위생검사상황 등 기재
- 02 일로전역참여함정비교도(日露戰役參與艦艇比較圖) :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참여했던 양국의 함정 현황을 비교한 자료
- 03 조선총독부 약제사 시험 합격과목 증명서(1941년) : 조선총독부약제사시험위원장이 발급한 과목별 합격과목 증명서